한형조

무문관 탐방

㉔

동산의 삼베

*동산에게 누군가가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동산이 말했다. "삼(麻)세 근."

*나 혜개가 말한다. "동산노인은 조개선(禪)을 얻을 수 있어, 양 껍질을 여니 속살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렇더라도 어디 말해 보라. 대체 어디에서 동산을 볼 것인가."

*송하여 가로되, 난데없이 삼 세 근이라. 말이 친절한데 뜻은 더욱 친절하다. 여기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자는 시비에 빠진 한심한 자이다.

洞山三斤

洞山和尙因僧問, 如何是佛. 山云, 麻三斤. 無門曰, 洞山老人參得些蚌蛤禪, 纔開兩片, 露出肝腸. 然雖如是, 且道. 向甚處, 見洞山. 頌曰, 突出麻三斤, 言親意更親. 來說是非者, 便是是非人.

동산이란 이름이 나올 때는 슬쩍 긴장된다. 조동종(曹洞宗)을 창시한 동산 양개(洞山良介, 807~869)인지 아니면, 그보다 한 세기 후의 운문의 제자인 동산수초(洞山守初 910~990)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동산이란 이름이 둘 뿐이지는 않을 것이다. 선의 역사의 뒤안길에 이름없이 사라진 또 다른 동산이 서넛 정도는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림·이준석

지 짜른 선사에게 구지(俱胝)라는 이름은 아주 걸맞는다. 선사들의 이름 짓기는 대체로 이 두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유일한 예외라면 수천의 기라성을 키운 호보용행(虎步龍行)의 거장 마조(馬祖)가 있는데, 그는 자신의 속성인 마씨(馬氏)를 그대로 썼다. 그렇다면 동산(洞山)은 원래 지명이라는 것, 그리고 그곳은 행복하게도 두 사람의 걸출한 선사가 연이어 선의 불꽃을 지펴간 길지(吉地)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혹 모르겠다. 원래 서로 다른 곳인데 우연히 지명이 같았는지도.

아무러나 저번 운문의 질문에 멍청한 대답으로 몽둥이 찜질을 받을 때는 그토록 초라해 보이던 사람이 지금은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부의 기세로 덮쳐 온다. 진리를 묻는 학인에게 동산은 짤막하나 단호하게 "삼 세 근!"이라고 대답했다. 동산은 그때 아마 삼을 손질하고 있었을 것이다. 생 줄기를 가마에 넣고 쪄서 새끼줄에 말린 피마(皮麻)를 건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혹은 정제한 삼줄더미를 베틀에 걸려고 추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동산의 대답에서 일종의 범신론이나 형이상학을 읽으려 한다. 그러나 선의 대답에는 신비주의적 색채나 초월적 존재에

"무엇이 부처입니까" "삼세근"

견고한 조개껍질 여니 속살이 드러났다

스님네들은 속성도 쓰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중복이 있게 되었을까.

대개들 알고 있듯이 선사들의 이름은 네 글자로 되어 있다(물론 예외도 있다). 진짜 이름은 나중의 둘이다. 가령 조주선사의 본래 법명은 종심(從심)이고 이 책의 편자인 무문의 이름은 혜개이다. 앞의 두 글자는 일종의 호(號)이다. 유학자들의 호는 고향땅이나 유배지, 혹은 후학을 지도한 곳 등의 연고를 따거나, 또 혹은 자신의 삶이 지향하고자 하는 이념을 함축하는 글자를 써서 짓는다. 선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선사들은 출가와 더불어 새로 태어나므로 고향의 이름을 선택한 경우는 드물고, 대체로 출가득도만행하다가 나중에 자리를 잡고 교화를 편 곳의 지명을 그대로 딴다. 조주(趙州)나 덕산(德山)처럼 산(山)이나 주(州)가 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 임제(臨濟)는 그 이름에서 '아하, 어디 물가나 나루 근처에서 법을 편 모양이군' 하는 짐작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깨달음의 인연이나, 법의 본질에 대한 특유한 인식을 이름에 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령, 지금 이 책의 편찬자 무문은 '진리에 이르는 문은 없다. 그럼에도 그 철통을 뚫는 길은 있다'는 진리의 역설을 이름에 담고 있고, 손가락 하나로 깨달음을 얻고 급기야 제자의 손가락까

대한 고려는 없다. 철저히 실천적이고 철두철미 현세적이다. 오죽하면 불교에서 진리를 실제(實際)라고 부르겠는가. 여실(如實) 혹은 여여(如如) 등은 밋밋하고 싱겁기 그지없는 이름이다. 이 말을 통해 불교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계 너머나 혹은 그 안쪽에 무슨 실재나 본질 혹은 의미나 영혼이 존재한다는 환상(maya)를 갖지 말라는 차갑고 냉혹한 경고를 보냈다. 그때 역설적으로 진리와 만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우리는 그 단순한 실재에 접촉하기 힘들다. 그 속에 살면서도 말이다. 조산의 탄식처럼 우리는 술동이를 통째로 들이키고도 술을 입에 대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있다. 세계의 실상은 우리의 습관적 인식과 욕망과 관심으로 하여 차단되어 있다. 그 조개껍질은 너무나 단단하고 완강하다. 동산은 운문의 몽둥이 세례을 받으며 밤새 고민하다가 다음날 아침, 그 견고한 껍질을 깨트릴 수 있었다. 그 속살을 그는 학인에게 그대로 열어보여 주었다. 동산이 손수 까준 조개를 학인이 한 입에 털어넣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도 지금 먹을 생각은 않고 젓가락으로 살을 뒤적거리며 이게 뭐지, 먹어도 되는 물건인가 하고 시비(是非)하고 있다. 혜개가 그러지 말라고 그리 말리는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法數로 배우는 불교

〈34〉

사람이 수행을 고도로 쌓아 번뇌와 무명을 탁 깨뜨려 버리면 허공처럼 청정하고 확 트인 참마음 자리가 열리는데 여기에는 한점의 속박도 치우침도 없다고 한다. 이것을 중도의 경지라고 하며 이 앞에서는 우매한 중생들이 항상 끄집어 앉아 있는 나다, 너다, 옳다, 그르다, 높다, 낮다 하는 등의 온갖 분별이 불위의 눈처럼 사라진다. 중도는 부처님의 바르게 깨치신 법의 안목으로 치우침이 없는 경지를 뜻하는데 반야를 터득하고 공을 체험한 마음에서만이 실감되는 것이다. 중도의 완성은 불

팔부중도(八不中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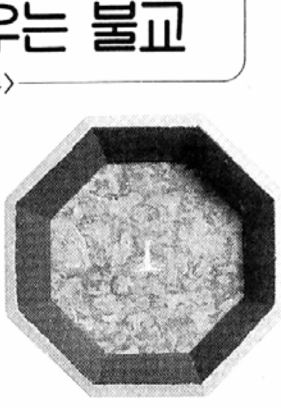
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중도의 이치를 가장 훌륭하게 설파한 분이 용수보살이다. 그는 제2의 석가, 8종의 조사라고 할 만큼 위대했다.

용수보살은 대승불교의 선구자로서 〈대지도론〉 〈십주비바사론〉 〈중론〉과 같은 불후의 이론서를 짓기도 했다. 이와같은 논서들은 모두 삿된 것을 부수어 올바름을 드러내려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을 목표로 중도의 이치를 앞세워 당시의 잘못되고 왜곡된 불교학자와 외도들의 학설을 물리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서도 〈중론(中論)〉은 용수보살의 대표적인 논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덟가지의 그릇된 견해를 부정함으로써 부처님의 적멸한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밝힌다. 이른바 불생불멸(不生不滅) 불상부단(不常不斷) 불일불이(不一不異) 불래불거(不來不去)의 팔부중도가 그것이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중도의 이치는 모든 법이 본래부터 자성이 없이 갖가지 인연을 통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연기법(緣起法)에 근거하여 설해진 내용이다.

인연에 의해서 나타난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는 공한 것으로 양변을 여의었다. 그러므로 중도는 곧 연기의 법이며 공한 법이며 일체의 차별



◇송수남 作 '자연과 명상'

8가지 고집 부정한 용수의 중도 이치

'중도는 연기법' 차별·대립 소멸법 알게돼

과 대립을 떠난 적멸의 법이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선 불생불멸은 지혜로운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법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질계건 정신계건 망념된 중생의 차원에서 볼 때에는 일어남이 있고 사라짐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거짓모습이라 생멸이 끊어졌다고 말한다. 다음의 불상부단은 모든 법은 영원함도 끊어짐도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들이 있고 반대로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다고 여기기 쉽지만 그 역시 치우친 견해로 망념된 마음의 소산일 뿐 이라고 한다.

다음의 불일불이는 모든 법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서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서로서로는 완연히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 또한 잘못된 소견들로 중도의 이치를 등졌기 때문에 이같은 편견을 짓는다고 한다.

마지막 불래불거는 모든 법은 어디로부터 온 바도 없고 어디를 향해 간 바도 없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왔다가 저곳으로 가는 것이 모든 존재들의 흐름같지만 그것 역시 형상에 집착하는 망념된 마음에서 그렇게 보일뿐 실지로는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이와같은 팔부중도를 우리들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다. 비유를 든다면 바다와 거품에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바다의 입장에서 볼때 한방울의 거품이 생겨나고 없어지지만 바다 자체에서는 생겨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또 거품은 항상 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거품의 물이 아주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 거품과 바다가 같은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바닷물이 인연을 만나 거품이라는 다른 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그럼 반대로 거품과 물이 아주 다른 것이냐 하면 절대 그럴수는 없다. 거품은 물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거품이 왔다거나 갔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바다의 입장에서 볼때 거품은 가고 온 곳이 없다. 바람을 따라 왔건 바람을 따라 갔건 그것은 하나의 허망한 현상이지 바닷물은 그대로인 것이다. 이렇게 바닷물처럼 그대로인 법이 중도법이라면 우리들이 일으키는 차별의 법은 어떻게 소멸될 수 있을까. 자기 마음속에서 파생되는 인연의 법을 발견해 보는 일이 그 열쇠라 생각된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⑬②

불교와 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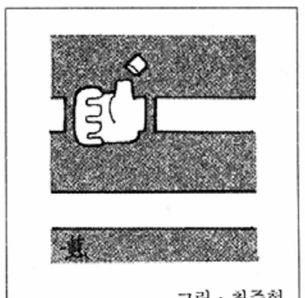
㉗

무한과 창조

김 용 운

보통 사람에게 수학이라면 대상을 엄격히 구별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생각이 있다. 실제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직선, 삼각형, 원 등은 엄밀하게 구별되어 있다. 이 구별이 흔들리면 아예 이 기하학은 성립할 수가 없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도형은 모든 유한의 공간 속에 있다. 이 공간의 특징은 '일정 직선 밖의 한 점을 지나 이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반드시 한 개만이 있다'는 공리에서 출발한다.

이때 "평행선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어디까지 가도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다"는 답이 나온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물음이 나올 수가 있다. "어디까지 간다는 것은 누가 어디까지 간다는 말인가?" "전지전능한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일정 시간에 태어나고 언젠가는 죽는 인간이다. 요컨대 유한의 시간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어디까지 가는 주체가 인간인 이상 평행선이란 '유한의 범위에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유한의 지름을 갖는 원의 중심은 분명히 한 개이며 원 둘레는 그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하지만 일단 지름이 무한대라고 전제한다면 어디에 중심을 잡아도 상관이 없다.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무한개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원과 사각형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진 것이다. 이때 우리는 삼각형, 사각형, 원 등은 같은 도형으로 생각한다.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교하면 매우 대범한 기하학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그림·최주현

무한세계, 모방·부정 거듭 창조성 발휘

'무한수학'도 유한계단 올라 초월 거쳐야

대범한 기하학의 세계에도 구별되어야 할 것이 있으며 모두가 무턱대고 같은 것은 아니다.

선(禪)의 세계는 유한의 인간이 무한 속에서 자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는 세계다. 무한 속의 유한적인 사고, 즉 상식은 무의미해진다. 무한은 유한의 부정이며 부정적 세계에서 무한의 가능성을 찾는다. 무한 속에 인간이 최대의 가능성, 즉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창조성은 모방의 반대이며 유한에 대한 부정을 거듭하며 개성(個性)이 최대로 발휘된다.

구지화상은 선(禪)의 의미를 묻는 제자에게 항상 엄지손가락을 반듯이 세워 보였다. 제자들은 스승의 본을 따서 함께 엄지손가락을 세우게 되었다. 어느날 화상은 그런 나이 어린 제자의 엄지손가락을 잘라 버린다. '아야'하며 물러가는 그 제자를 불렀다. 이 제자는 뒤돌아 서서 화상을 보았다. 이때 화상은 다시 자기 엄지손가락을 반듯이 세운다. 그 모습을 보며 그 제자는 자기도 엄지손가락을 세우려 한다. 그러나 이미 그의 엄지손가락은 없다. 이 순간 그는 손가락이 없어진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스스로의 길을 모색해 대오(大悟)를 얻었다는 이야기다.

구지화상은 이미 오랜 수도 끝에 자신의 경지를 개척하고 엄지손가락 하나를 세우는 선(禪)의 세계를 수립하고 있었다. 손가락 하나를 세우게 된 과정은 쉽지 않았다. 부정과 부정이 거듭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스스로 개척한 무한 세계의 극한점이다. 어린 제자는 그러한 과정도 없이 시늉만으로 손가락을 세웠었다. 그것은 단순한 모방이다. 모방이 대오(大悟)의 경지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자신의 무한 세계를 개척하는 길에 설 수가 있었다. 모방은 창조성의 반대이다. 유한의 기하학의 결과가 무한 세계에서 의미를 잃는다.

무한의 수학, 가령 위상 수학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유한 세계의 한계를 몇 번씩 깨닫고 그 한계를 지렛대 삼아 유한 세계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색의 과정이 모방의 범위에서 머문다면 결코 자신의 지적 세계를 개척할 수 없다.

유한 세계를 초월하는 무한 세계로의 길은 단숨에 무한으로의 돌입이 아니라 한 걸음씩 올라가는 유한 세계 계단의 극점에서 비약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도 부정, 부정 그리고 초월이라는 과정이 있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문화 유산의 해 특선 도서

민족의 얼 문화 유산 알고·찾고·가꾸자

우리 절 알기(사지)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효림/ 7,000원
한국 사찰에 얽힌 이야기 전영진/ 보경문화사/ 6,500원
한국의 사찰 대한불교(신)/ 부다가야/ 8,500원
절로 가는 마음 1, 2 신영훈/ 책만드는집/ 각 7,000 9,000원
한국 사찰의 주련 1, 2 권영한/ 전원문화사/ 각 10,000원
한국의 사찰 시리즈 불국사, 석굴암, 신라의 폐사(1, 2), 통도사, 법주사, 송광사, 해인사, 화엄사, 부석사, 대흥사, 금산사, 월정사, 낙산사, 전등사, 신륵사, 북한의 사찰, 범어사 일지사/ 각 2,500원
한국의 가람 홍윤식/ 민족사/ 12,000원
건봉사 본말사적, 유점사 본말사지 편집부/ 아세아문화사/ 50,000원
금산사지 편집부/ 아세아문화사/ 12,000원
만덕사지 편집부/ 아세아문화사/ 24,000원
불국사지 편집부/ 아세아문화사/ 24,000원
운문사지 편집부/ 아세아문화사/ 18,000원
전등 본말사지, 봉선 본말사지 편집부/ 아세아문화사/ 35,000원
직지사지 편집부/ 아세아문화사/ 20,000원
태안사지 편집부/ 아세아문화사/ 15,000원
통도사지 편집부/ 아세아문화사/ 38,000원
봉은사 사찰문화(연)/ 사찰문화(연)/ 12,000원
보문사 사찰문화(연)/ 사찰문화(연)/ 10,000원

우리 절 찾기

명찰 편집부/ 한국문원/ 15,000원
한국의 폐사 이재중/ 한국문화사/ 8,000원
겨레의 땅 부처님 땅 윤경렬/ 불지사/ 18,000원
돌부처 이근후/ 여시아문/ 6,500원
명찰순례 1, 2, 3 최완수/ 대원사/ 각 8,500원
명산 고찰따라 상하, 속1,2 이고운/ 운주사/ 각5,500원
경주 남산의 탑골 윤경렬/ 열화당/ 4,000원
우리산 옛절 김장호, 김승호/ 대원정사/ 7,500원
암자로 가는 길 정찬주/ 좋은글/ 9,500원
한국의 성지 (불교편) 이선민/ 샘터/ 4,000원

우리 문화 알기

발굴 이야기 조유전/ 대원정사/ 8,500원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1, 2 주강현/ 한겨레신문사/ 각 6,500 7,000원
문화재 다루기 이내옥/ 열화당/ 10,000원
문화재 수난사 이구열/ 돌베개/ 8,500원
문화재 비화 상, 하 고제희/ 돌베개/ 6,800원
그림으로 배우는 우리의 문화 유산 송석상, 이강승/ 학연문화사/ 10,000원
한국 전통 목조 건축 도집 한국건축가협회/ 일지사/ 20,000원
한국의 건축 윤장섭/ 서울대출판부/ 36,000원
나는 공부하러 박물관 간다 이귄복/ 효형/ 10,000원
조선 전기 불복장직물의 이해 김영숙/ 미술문화/ 20,000원
한국의 도자기 정양모/ 문예/ 25,000원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윤용이/ 학고재/ 12,000원
전통 사찰 시리즈 서울, 경기도, 보문사, 용주사, 갓바위 부처 사찰문화(연)/ 사찰문화(연)/ 각 10,000원
전통 사찰 시리즈 강원도 1, 2 사찰문화(연)/ 사찰문화(연)/ 각 7,500원
전통 사찰 시리즈 전남 1, 2 사찰문화(연)/ 사찰문화(연)/ 각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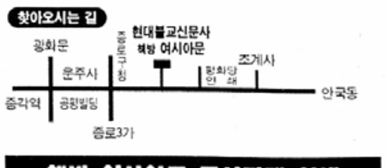
우리 문화 찾기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1, 2, 3 유홍준/ 창작과비평사/ 각 7,000 7,500원
문화의 산길 들길 정재훈/ 화산문화/ 7,500원
문화 유산을 찾아서 이형권/ 매일경제(신)/ 7,800원
마을로 간 미륵 1, 2 주강현/ 대원정사/ 각 7,000 7,800원
우리 민속 현장 답사기 민속학회/ 태일/ 6,500원
부끄러운 문화 답사기 기록문학회/ 실천문학사/ 7,500원
답사 여행의 길잡이 동해 설악, 지리산자락, 전북, 경주 한국문화답사회/ 돌베개/ 각 9,000원
답사 여행의 길잡이 전남, 충남 한국문화답사회/ 돌베개/ 각 12,000원
답사 여행의 길잡이 경기 남부와 남한강 한국문화답사회/ 돌베개/ 10,000원
답사 여행의 길잡이 팔공산자락 한국문화답사회/ 돌베개/ 15,000원

불교 미술 알기

한국 불교 미술사 김잉주/ 솔/ 20,000원
한국 불교 미술사 문명대/ 한국언론자료(간)/ 18,000원
한국의 불교 미술 장충식/ 민족사/ 7,000원
한국 불교 미술의 형식 문명대/ 한국언론자료(간)/ 14,000원
한국의 불교 미술 홍윤식/ 대원정사/ 8,500원
한국 불교 미술의 형식 문명대/ 한인/ 14,000원
한국의 목공예 상, 하 이종석/ 열화당/ 18,000원
한국 석등 양식 정명호/ 민족문화사/ 18,000원
남산 (영문판) 불지사/ 40,000원
꽃문 관조/ 미술문화/ 25,000원
대웅전 관조/ 미술문화/ 18,000원
세계의 불교 미술 불교신문사/ 13,000원
목조 장기인/ 보성문화사/ 12,000원
탑 김희경/ 열화당/ 5,500원
고려 불화 문명대/ 열화당/ 4,500원
한국 불교의 사리 장엄 강우방/ 열화당/ 4,500원
한국의 석조 미술 진홍섭/ 문예/ 25,000원

찾아오시는 길



책방 여시아문 통신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02)737-0695, 732-1521
팩스:(02)737-0696